

일본 기업의 ESG 경영 트렌드

류희숙 수석연구원(hsyoo@posri.re.kr)

목차

1. 검토 배경
2. Environment: 탈탄소 사회를 위한 환경 비전 실현
3. Society: 차별화된 사회 공헌 & 다양성의 포용
4. Governance: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위원회 운영
5.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일본은 '12년부터 '일본 재흥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 구조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기업에 제안해 왔음
 - 정부가 권고하는 기업지배구조, 기업과 투자자의 대화에 대한 제안은 물론 환경·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려는 'SDG Native' 세대의 등장도 기업의 ESG 경영 강화의 요건이 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 주도 SDGs/ESG 투자연구회, 기업지배구조연구회, SX(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연구회에서 논의된 우수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Environment)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여 기업들도 '업'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 비전'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시미즈건설은 탈탄소, 자원 순환, 자연 공생의 환경 비전을 발표하고, '30년까지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재생 에너지 100% 도입을 목표함
 - 스미토모화학은 기후변화 대응,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54개 제품군을 'Sumika Sustainable Solutions'로 지정, 인증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제품 매출 확대 실현
- (Society) 기업 고유의 기술·제품을 활용한 사회 공헌, 뉴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혁신, 다양성·포용적인 문화 조성
 - 정보통신회사인 NEC는 회사가 보유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자가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함
 -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성 행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 (Governance) ESG 경영을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음
 - KAO, Ajinomoto,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등은 이사회 내에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ESG위원회를 두고 지속가능성 측면의 기업 경영과 ESG 목표 달성을 감독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은 중장기 비즈니스 성장과 ESG 경영을 동기화하고 있으며 투자자·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성과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음

1. 검토 배경

- 일본 정부는 '12.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재흥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인센티브에 대해 기업들에 제안해 왔음
- 경제산업성 주도로 기업의 정보 공개, 기업과 투자자의 대화를 통한 바람직한 관계 구축, ESG 투자 확대를 강조했음
 - 일본 정부가 기업에 권고하는 ESG 경영 전략은 사회적 과제(UN SDGs 목표)를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이에 더하여 사업 프로세스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혁신에 적극적인 기업에 역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할 것임. 그리고 여기에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대화를 통해 '협창(協創)-협력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필수적임
 - 경제산업성은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 예를 들어 Society 영역에서 종업원 만족도, 안전사고 건수 등 비재무지표를 경영진 인센티브 지표로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18년부터 'SDGs경영/ESG 투자연구회'를 비롯,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경쟁력에 관한 ESG 관점의 연구회를 운영해 왔음
 - '21년 5월에는 SX(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연구회¹를 설립하여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기업이 지향해야 할 가치, SX를 위한 기업의 존재 목적, 중요 과제, 장기 비전 수립, 자본시장-투자자와의 대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¹ SX연구회 멤버: 토요타, 히타치, 오므론, 가와사키중공업, 마루이, 미쓰비시케미컬, 미쓰이화학, 미쓰비시상사, 기린홀딩스, 리소나자산운용, BNP파리바증권, (이하 옅겨버) 일본게이단렌, 도쿄증권거래소, 공인회계사 협회, 일본IR협의회 등

□ 일본 정부 차원의 ESG 경영 요구 외에도 ‘SDG Native 세대’의 부상과 같은 소비 계층의 변화도 기업의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음

- ‘SDG Native’ 세대가 환경·사회문제에 관심을 높이면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
 - 기성세대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세대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이들은 9·11 테러(‘01), 동일본 대지진(‘11), 글로벌 금융위기(‘08)에 코로나19(‘20)까지 겪으면서 사회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윤리적인 소비와 기업과 사회의 공존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음
 - 일본에서는 장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이 SDG Native 세대로 상속되는 2030년대 후반부터는 이들이 기업의 직원뿐 아니라 상속 자산의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기업의 경영 이념과 ESG 부합도가 회사 선택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기업도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SDGs와 연계한 경영 과제 선정과 성과 달성 노력이 필요함

【SDG Native 세대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



자료: 일본총연 ESG 리서치센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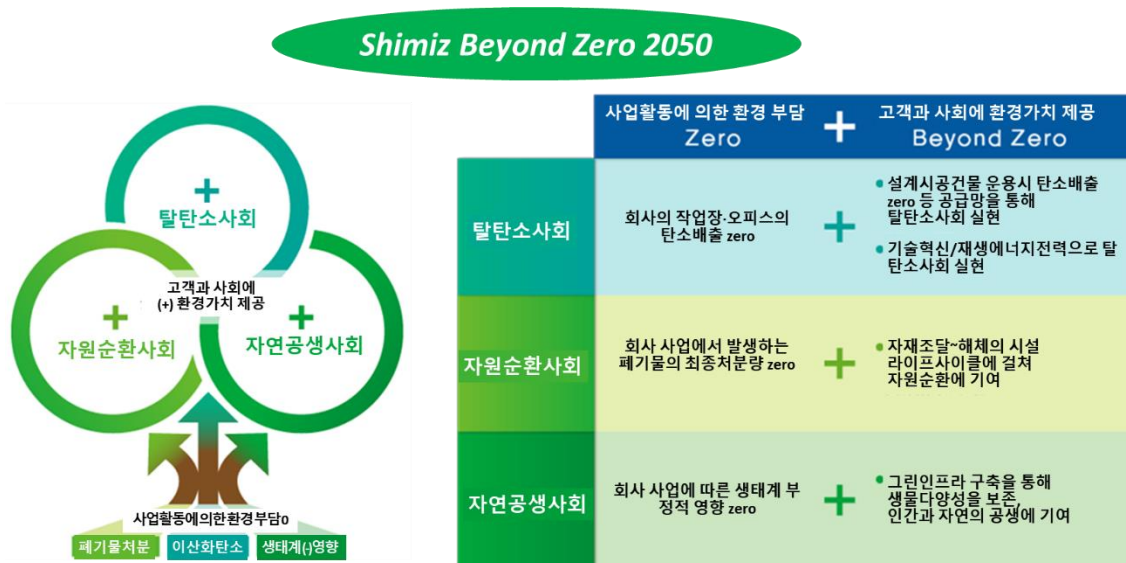
2. Environment: 탈탄소 사회를 위한 환경 비전 실현

□ 일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제시에 따라 業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 비전’ 수립 및 세부 실행 과제 추진

○ Shimiz Corporation(시미즈건설)²은 '21.6월에 발표한 그룹 환경 비전 ‘SHIMZ Beyond Zero 2050’을 통해 탈탄소, 자원 순환, 자연 공생 강조

- 특히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 ‘30년까지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오피스·물류시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도입률을 100%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건물의 에너지 절감 성과를 ‘Green Property+(그린 프로퍼티+)'라는 고유 브랜드를 통해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특징임

【시미즈건설의 환경 비전】



- 또한 시미즈건설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市에 지은 신사옥이 최고 수준의 ‘제로 에너지 건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받기도 했음

² Shimiz Corporation: 1804년 설립, 대형 건설회사, 매출 1조4564억엔('20), 종업원 10,494명('20)
주요 시공/설계 건물: 국립 요요기 경기장(1964),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활주로D(2010), 아리아케 체조경기장(2019), 요코하마 야구 스타디움(2020), 싱가포르 지하철 이스트라인 T207 공구(2020)

- 동 건물에는 시미즈건설이 자체 개발한 'Hydro Q-BICTM'이라는 수소 에너지 이용 기술을 적용함. 이는 건물 내 전력 수요가 적은 주말·휴일에 태양광 발전설비(140kW)의 잉여 전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제조·축전(蓄電) (2,000kWh)했다가 전력 수요에 따라 수소를 방출·발전하는 제어 시스템임
- 수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봄가을의 잉여 전력을 여름·겨울에 사용하거나, 축전지를 이용하여 재해 시 비상 전원으로 7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대형 건설사로서 친환경 성과를 달성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시미즈건설의 가나자와 신사옥(左) 및 수소 에너지 이용 시스템(右)】



자료: 시미즈건설 보도자료

○ Sumitomo chemical(스미토모케미컬)³은 화학 회사로서 추구할 수 있는 환경 부하 저감에 공헌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자원 재활용 등에 기여하는 54개 제품군을 'Sumika Sustainable Solutions'로 지정하여 '21년까지 5,600억엔 매출 달성을 추진하였음(해당 제품군의 '19년 매출은 4,798억엔임)
- 'Sumika Sustainable Solutions(SSS)'는 연구소·공장·그룹사에서 제품·기술에 대한 제안을 받아, 내부 인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서 검증하게 되며 인증수여식도 개최하여 대내외에 공유하고 있음

³ Sumitomo Chemical: 1913년 설립, 종합화학회사, 매출 2조2,869억엔('20), 종업원 34,743명('20)

- 이 외에도 해양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부하 저감 기술 개발 연구 그룹’을 신설하여(‘20.4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개발하고 있으며 P&G, Pepsico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AEPW⁴에도 가입하였음

【Sumika Sustainable Solutions의 인정 요건과 환경 공헌 실적(‘20)】



자료: 스미토모화학 웹사이트

○ 대형 건설사인 Obayashi(오바야시)⁵는 국토교통성의 ‘저탄소 사회에 부합하는 목조건축물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목조(木造)건물 건축 중

- 해당 건물은 22.3월 준공을 목표로 일본 요코하마시에 짓고 있는 회사 연수원 건물로 완공되면 일본 최고(最高) 높이인 11층 목조건물이 됨
- Obayashi가 자체 개발한 내화 목자재인 ‘오메가 우드’를 기둥과 대들보에 사용하는데, 오메가 우드는 화재가 발생해도 최대 3시간까지 버틸 수 있으며, 기존 철골조 건물 공사와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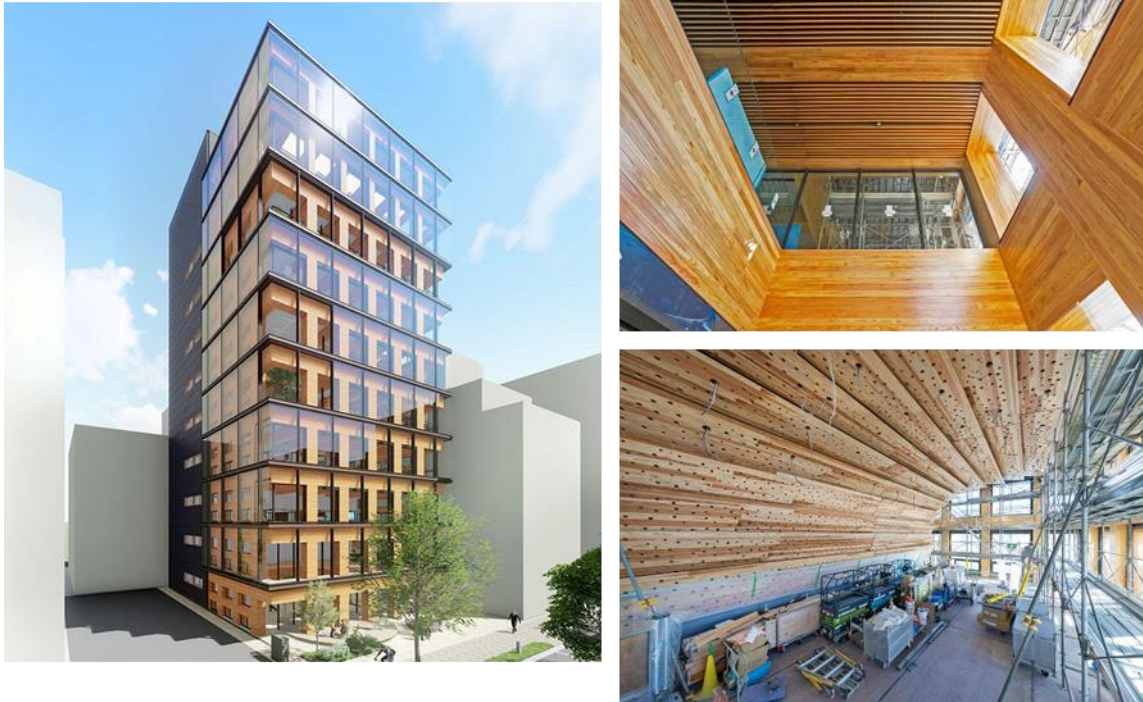
⁴ AEPW(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연합): ‘19년 설립, 5년간 \$5억을 투입하여 폐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기술 혁신, 회수 등의 활동 실시 중

⁵ 1936년 설립, 매출 1조2,304억엔(‘20), 종업원 8,900명(‘20) 869억엔(‘20), 종업원 34,743명(‘20)

주요 시공 실적: 일본 오카야마현 세토대교(1985), 도쿄만 아쿠아라인(1997), 도쿄 스카이트리(‘12), 싱가포르 창이공항(‘19) 등

- 회사의 친환경 기술을 집약한 랜드마크로서 향후 중간 규모 건축물에서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목조로 대체하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일본 정부의 목재 사용 장려 정책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Obayashi가 짓고 있는 목조건물의 완성 이미지(左) & 진척 상황(右)】



자료: Obayashi 웹사이트(oyproject.com)(’21.12.27.)

3. Society: 차별화된 사회 공헌 & 다양성의 포용

□ 기업 고유의 기술·제품을 활용하는 사회 공헌은 물론, NGO/벤처의 혁신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화장품·화학회사인 KAO(카오) ⁶ 는 ‘Recycle’에 가치 창조를 더한 ‘Recycreation’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를 분쇄하여 어린이 장난감 블록을 제작, 학교·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에는 대학·지자체는 물론 KAO의 경쟁사인 Lion도 협력 중

⁶ KAO(花王): 1940년 설립, 화장품·화학회사, 매출 1조3,820억엔(’20), 종업원 33,409명(’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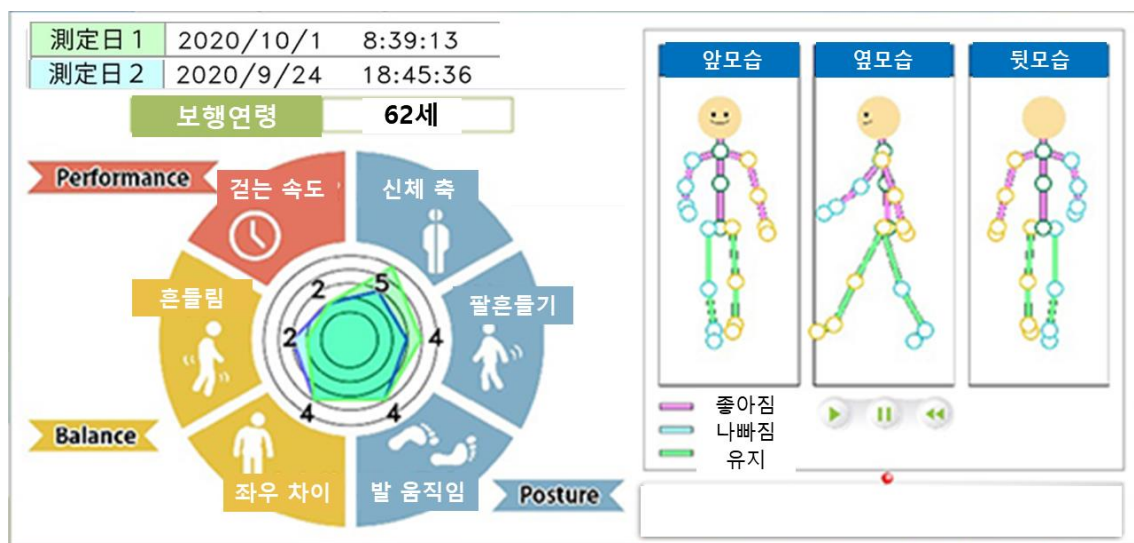
【KAO의 Recycreation 개념도 및 블록 활용 장면】



○ 정보통신회사인 NEC(일본전기주식회사)⁷는 회사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보행 자세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동 시스템은 일본 교토(京都)시가 고령 사회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 중인 'Frail 대책 시범 사업'⁸에 활용되고 있음
- NEC의 ICT를 활용하여 지역케어센터에 방문한 노인들의 신체 기능을 분석, 건강 이상 전조 증상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함임

【NEC 보행 자세 측정 시스템의 화면 구성】



자료: NEC 보도자료('21.1.18.)

⁷ NEC(일본전기주식회사): 1899년 설립, IT 서비스 회사, 매출 2조9,940억엔('20), 종업원 114,714명('20)

⁸ 일본 정부는 '96년부터 고령 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을 Active(활동적), Frail(허약한), Dependent(돌봄 의존) 상태로 구분하고 있음. Frail은 의료나 돌봄에 장기간 의존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심신이 쇠약해져도 회복하여 건강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보행 자세 측정 시스템’을 통해 ‘걷는 속도’, ‘보폭’, ‘발의 움직임’ 등 36개 항목을 수치화하여 연령·성별 기준에 따라 신체 기능을 평가할 수 있음
- 종전의 신체 측정 시스템은 각종 기기를 몸에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저항감 발생. NEC의 시스템은 6m 전방의 3D 센서를 보고 걸기만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수용성을 높였음

○ 자동차 회사인 Honda(혼다)⁹는 벤처를 지원하면서 사회적 과제도 해결하고, 신사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있음

- 내부 직원이나 외부 벤처의 독창적인 기술·아이디어·디자인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신사업으로 연결하는 IGNITION¹⁰ 프로그램 운영
- 투자 1호 기업인 아시라세(Ashirase)는 Honda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자동 운전 시스템·모터 제어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장착 신발을 개발하였으며, 벤처 설립을 통해 5,000만엔의 자금을 지원받아 ‘22년 제품을 발매할 예정

【Ashirase社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장착 신발 모습】



자료: Honda 보도자료('21.6.11.)

□ 뉴노멀·디지털 변혁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건강·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⁹ Honda: 1948년 설립, 자동차 회사, 매출 13조1,705억엔('20), 종업원 211,374명('20)

¹⁰ IGNITION의 의미가 자동차 점화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점화(點火)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Fujitsu(후지쯔)¹¹는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Work Life Balance’를 넘어서 웰빙을 실현하는 ‘Work Life Shif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Smart working: 종업원의 의무 근로 시간대를 폐지하고 Web-OTR(Online Time Recorder)로 근무 시간 기록, 지역별 허브 오피스 운영으로 교통비 지원 폐지, 단신 부임을 폐지하고 원격 지원으로 대체
- Borderless Office: 허브 오피스, 자택 등 근무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고 회사 근무 공간은 최대 50%까지 축소
- Culture Change: 직원의 자율성과 신뢰에 기반한 인력 관리로서 관리직 1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형 인사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 명시, 달성 수준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협의 진행 중

○ 금융지주회사인 Nomura Holdings(노무라홀딩스)¹²는 전사 차원의 건강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 ‘NOMURA 건강 경영 선언’¹³을 발표하고 COO(Chief Operating Officer)가 건강 경영 최고책임자(Chief Health Officer)를 겸직, 회사 차원의 강력한 건강 증진 활동 추진
- 노무라의 건강 경영 추진은 그룹사의 인사 담당 임원, 인사부, 산업보건 의사, 건강보험조합으로 구성된 ‘건강 경영 추진협의회’가 Nomura Work Style Innovation을 주도하고 있음¹⁴



¹¹ Fujitsu: 1935년 설립, 정보통신회사, 매출 3조5,897억엔('20), 종업원 126,400명('20)

¹² Nomura Holdings: 1925년 설립, 금융지주회사, 일본 내 운용 자산 127조엔, 종업원 26,647명('20), 계열사: 노무라증권, 노무라에셋매니지먼트, 노무라신탁은행, 노무라비즈니스서비스, 노무라퍼실리티즈 등

¹³ “노무라그룹의 최대 재산은 인재입니다. 사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활약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념 하에 노무라그룹은 사원의 건강 유지·증진을 경영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¹⁴ 건강경영을 강조하면서 사내에 배포했던 팸플릿에는 당시 대표였던 오자키 사장이 일·생활 균형을 설명하는 일러스트로 설명하여 직원들에게 안정감·친근감 표현

- 건강검진/정밀검사를 강화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고 구성원 건강검진을 100%를 달성하고자 함. 30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100여 개 항목을 검사하는 정밀 건강진단 비용과 유급휴가 제공
- 'NOMURA 건강 챌린지'를 실시하여 운동, 식습관, 체질량, 흡연, 음주 등 건강 항목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건강 경영 플랫폼 'WellGo'에서 관리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증권거래소는 '17년 '중장기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성 행동 가이드 라인을 발표,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평가

- 특히 여성 직원이 활약할 수 있는 우수 상장 기업을 선정하여 'Nadeshiko' 브랜드를 부여하고,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매력도를 소개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미래 생산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미래 채용 환경이 현재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무직은 물론 생산직에도 여성 채용을 확대하고 있음

【일본 경제산업성&증권거래소의 Nadeshiko 브랜드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설명
① 경영전략 연계	· 최고 경영층이 다양성 정책 명시, KPI·로드맵 수립
② 추진 체제 구축	· 경영진 레벨에서 추진 체제 구축, 사업 부문과 연계, 경영 임원 평가 반영
③ 거버넌스 개혁	· 이사회의 다양성 정책 추진 감독 기능 향상, 다양한 인재를 이사회·감사에 등용
④ 전사적인 환경·규칙 제정	· 직원이 활약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혁
⑤ 관리직의 행동·의식 개혁	· 직원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관리직 교육 훈련 실시·정비
⑥ 종업원의 행동·의식 개혁	· 다양한 커리어 패스 구축, 직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커리어 오너십 육성
⑦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 일관된 인재 관리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그 내용을 노동시장에 공개, 투자자들과 다양성 정책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 ROE 가점	· 기업의 3년 평균 ROE에 따라 가점 부여

자료: 경제산업성이 '17년에 발표한 기업의 '다양성 행동 가이드 라인 7대 행동 계획'

- 일본의 철강 회사인 일본제철과 JFE도 'Nadeshiko 브랜드'에 선정되었는데, JFE는 일본 내각부가 주도하는 '여성의 활약을 촉진하는 리더회의' 행동 선언에도 참여하였음
- JFE는 '12.1월에 Diversity 추진실을 설치하였는데, 동 부서는 JFE홀딩스의 스틸, 엔지니어링, 상사 사업회사에 각각 설치되었음. 해당 부서는 직급별 연수, 여성 교류회 등 자기 계발 활동 지원, 각 사업 회사 간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Diversity를 구현하고 있음
- 특히 JFE는 자녀 돌봄 또는 가족 돌봄 등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24시간 현장 교대근무 체제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근무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ESG 경영 목표를 이해하여 성과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변화 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고 있음

○ NTT Data¹⁵는 글로벌 사업장 내 다양한 구성원의 혁신을 장려하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한 'Open Innovation Contest'를 실시

- 고객사-벤처기업과 협동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안. 헬스케어·금융·통신·리테일·자동화에 대해 공모 진행
- 보스턴·런던·상파울루 등 16개 지역 예선을 거쳐 도쿄에서 본선 발표 대회 개최. 역대 우승 기업이었던 스페인 스타트업인 Social Coin과 NTT Data가 협업하여 '20. 5월에 일본 내 코로나 감염자 현황을 Twitter로 모니터링하는 사이트'를 개발하여 주목받았음

【Open Innovation Contest 시상식 ('20.1.24., 도쿄)】



¹⁵ NTT Data: 1988년 설립, 통신 서비스 기업, 매출 2조3,187억엔('20), 종업원 139,700명('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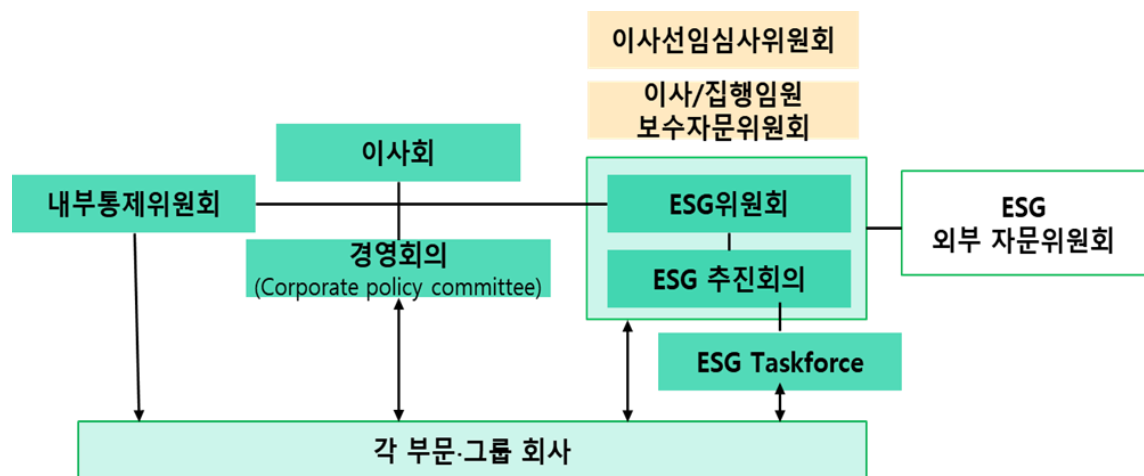
4. Governance: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위원회 운영

□ 기업들은 ESG를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관점으로 인식하고 ESG 영역 목표 달성의 드라이버로서 기업지배구조 구축

○ KAO는 ‘10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성위원회를 운영했으며 ‘18년에 이를 확대하여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이사선임심사위원회, 보수자문위원회와 더불어 ESG위원회를 두고 있음. 사내에서는 ESG추진회의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음
- KAO는 '18.7월에 글로벌 ESG 전략을 추진하는 ‘ESG 부문’을 신설하고, '19.4월에 ‘ESG 전략, 2030’을 발표하였는데 ESG위원회에서는 KAO 그룹의 ESG 활동 전략 수립, ESG 추진회의 상정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분기별 전략 진척 상황 관리 등을 수행 중

【 KAO 이사회의 위원회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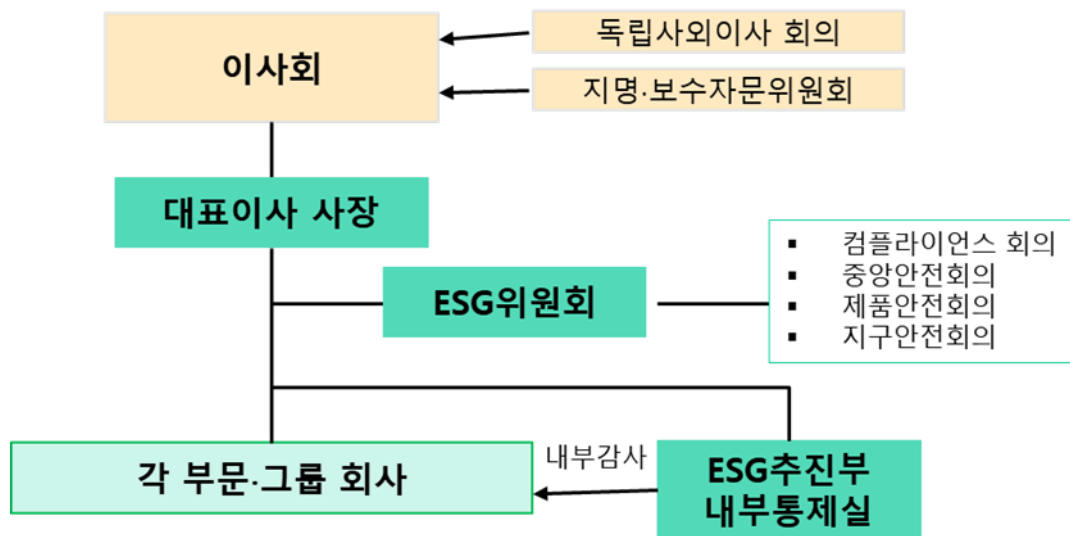
자료: KAO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및 KAO 웹사이트

- 이밖에도 Ajinomoto, AssetmanagementOne,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은 이사회 내에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속가능성위원회(sustainability committee)를 설치하여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핵심에 두고, 중장기 전략이나 ESG 목표 달성에 대해 감독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ESG 경영 거버넌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은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보다 CEO 직속 내부위원회로 운영하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구조를 갖춘 회사가 많음

- 태양광 시스템 제조 회사인 KANEKA¹⁶는 '19.4월에 CEO 직속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음.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컴플라이언스 등 각 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국내외 그룹사 대상 'ESG 적정감사', 'ESG 안전·품질 사찰' 등을 수행하며 회사 비즈니스에 ESG를 연계하고 있음

【 KANEKA의 ESG위원회 구조 】



자료: KANEKA 웹사이트

- 그러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증가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¹⁶ 1949년 설립. 기능성 수지·태양광 시스템 제조회사, 매출 5,774억엔('20), 종업원 11,272명('20)

5. 시사점

□ 일본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는 사회적으로는 좋은 기업,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지향하는 것임

○ 기업의 ESG 활동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중장기 비전,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를 동기화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아야 함

- 기업이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회사와 사회의 모습을 ‘장기 비전’에 포함해야 함. 이를 회사 구성원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또한 필요함
- 아직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ESG 접근 방식은 다소 negative screen 방식에 치우쳐 있음.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저촉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 이는 중장기적인 신규 시장 창출에 연계되는 기회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불충분함
- ESG 경영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 신시장 창출에 의한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 회사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를 정확히 파악, 회사 고유의 ‘사회적 과제’를 구성해야 함
- ESG 경영 과제 실행과 성과 관리를 위해 세부 과제 및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 공급망 관리, 다양성 등 중요 테마에 대응하면서 구성원들의 변화를 관리해야 함

○ 최근 일본 기업들은 기업의 ESG 활동 성과 달성은 물론,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에도 주력하고 있음

- 히타치제작소, 시미즈건설, 스미토모상사 등 다수 기업이 ‘ESG 설명회’ 또는 ‘SDG/ESG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영 비전-사회적 가치(UN SDGs 포함)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음
- 이를 통해 ESG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활동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이 회사가 있어 다행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 자료의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고서/논문]

일본 경제산업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실무 지침, 2018

일본 경제산업성, SX연구회-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 창조, 2021

일본 게이단렌, ESG 투자의 진화, Society 5.0의 실현, 2020

일본 SDGs 추진 본부, SDGs 액션 플랜 2021, 2020

일본 McKinsey, ESG 경영과 가치 창조의 5가지 방향성, 2021

KOTRA Global Market Report 21-028,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웹사이트]

시미즈건설(www.shimz.co.jp)

스미토모화학(www.sumitomo-chem.co.jp)

오바야시구미(www.obayashi.co.jp)

카오(www.kao.com/jp/index.html)

NEC(jpn.nec.com)

혼다(www.honda.co.jp)

후지쯔(www.fujitsu.com/jp/)

노무라홀딩스(www.nomuraholdings.com/jp/top.html)

JFE steel(www.jfe-steel.co.jp/index.html)

NTT Data(www.nttdata.com/global/)

KANEKA(www.kaneka.co.jp/)